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517-7651 ~ 5    팩스/512-1225

##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 한국교계 원로목사 간담회

### 정직, 절제, 사랑의 실천 운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계기 마련

지난 10월 7일(금) 오전 10시부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최한 한국교회 갱신과 현 시국에 대한 한국교계 원로들의 간담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는 작금 사회적 위기와 각종 병리현상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시각으로 직시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자성하는 자세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날 설교를 한 임 옥 목사(한국기총 연합회장은 교육의 결과는 5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제문제에 대한 치유는 단기 처방으로서는 불가능하나 국가, 사회, 교회가 총력을 다해 현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는 영적인 운동의 기반 하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만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날의 간담회는 41개 교단이 연합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원로들이 전국교회의 회개운동을 제안한 것이며, 이 문제는 각 교단 총회장의 승인 하에 다시 전국교회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이 날의 모임은 전 한국교회 지속적인 영적 각성운동의 시작이며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범교단적인 협력 하에 회개운동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절제, 사랑의 실천 등 구체적인 생활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특별히 종교개혁 477주년을 맞는 10월 말을 계기로 전 한국교회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제 2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날 모임에서 교계 원로들은 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

(현실의 참상을 직시하며)

너무도 잔인하고 패역한 집단 살인사건으로 민심은 허탈 속에서 분노와 불안으로 뒬을 잃었고 관계의 세무비리와 군대의 하극상 사건은 국민의 마음에 우려와 통탄함을 금할 수 없게 하였다.

일부 젊은이들은 아타족이 되어 탕자로 전락했으며 다른 한편의 젊은이들은 인간을 집단적으로 살육하는 지존파족이 되었다. 일부 기성층은 극도의 부패 속에서 세무비리를 낳았고 일부 국가의 간성인 군대는 하극상으로 규율과 기강과 명령의 질서를 파괴하였다. 범인들은 아타족과 가진 자를 중오했으며 사회의 모순 때문임을 탓했다. 군인은 장교탈영으로 항거했으며 살인 강도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못해 한스러워하는 악랄한 당당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들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범행을 불러 일으킨 사회적 요인과 뿌리깊이 박힌 이 사회의 병폐 앞에 우리는 그 책임을 통감하며 이를 치유해 가는 일에 국민적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는, 이 민족은 전쟁의 재해와 가난 속에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황금만능의 풍토 속에서 자리왔다.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란 세대는 모두 일용 돈의 가치로 인생을 평가하게 되었고 그런 물질 만능은 드디어 과열경쟁을 낳아 이 사회를 혈안과 포악과 중오와 살기로 인간경시, 생명경시, 사회경시의 풍조를 자초케 하였다.

둘째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그 사회적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성품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고 나의 생명도 나 하나에게만 주어진 독일무이한 것이며 또한 나의 생명은 나 한사람의 이기적인 목적에 쓰여지기에는 너무도 고귀한 값이 치뤄진 것이기에 우리 생명 하나 하나는 실로 가치있고 존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성 육성과 사회성 훈련이 없었음을 통탄하게 자성한다.

셋째는, 가정의 인륜이 상망되었으며 효의 정신을 몽땅 상실한 데 그 요인을 찾게 된다. 지금은 70대 이들이 생활고로 노모를 모실 수 없어 90노모를 살해했다는 기막힌 사연을 지닌 불효시대이다. 효의 정신이 없는 사회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감사가 없는 사회는 불평 불만으로 패륜적인 추악한 죄를 대동하게 되어 악랄한 오늘의 사회상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제 전국교회는 오늘의 사회의 참상을 직시하고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통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하는 바이다.

1.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병폐 앞에 깨끗한 빛을 발하는 거듭난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차분히 자신을 녹여 섞음을 막아내는 의로운 인격을 가진 소금된 세력으로 이 사회의 저력을 형성하여 국민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 사회의 어둠과 부패를 몰아내는 일에 성실한 봉사를 다짐한다.

2. 일천 이백만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 동정과 이해와 친애와 봉사로 강하게 결속하고 성실하게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 사회 저편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 사회의 골수에 사무친 병폐를 치유하는 일에 최선의 봉사를 경주해야 한다.

3. 가정이 병들어 죽어가면 환경이 오염되어 죽어가며 인간이 살육되어 죽어가는 이 죽음의 병을 치료하여 회생시켜 재기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의 기도 이외의 다른 길로써는 이 민족을 고칠 길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복을 달라고 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하여 병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고침받아 복을 받을만한 의로운 민족, 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하여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의롭게 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되고 밀착된 신앙행위이기에 그 신앙행위는 모든 근심과 병폐와 좌절을 이기게 한다. 그러므로 전국교회는 기도령을 선포하고 정기적으로 민족을 위해 갱신과 중보의 진실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4. 따라서 전국 교회는 정직, 절제, 사랑의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1994년 10월 7일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 한 경 직    대표회장 임 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역대하 7장 14절)

창세기 강해



# 약속을 믿고 산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2 ~ 6절)

이종윤 목사

우리의 삶 속에는 약속에 의해 행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결혼서약을 비롯해서 각종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 등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대부분이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모든 약속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위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라 만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을 실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게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항상 함께하신다는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던 자요, 소망이 없었으며, 영벌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 2.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패의 걸음을 걷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벌리 떨어져 있는 것같이 보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땅의 티끌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연로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75세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으나 86세가 되던 해까지 11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원망의 소리를 발합니다. “나는 무자하오나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이다”(2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돕던 재정 담당 비서였는데, 약속을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불평하며 낙심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의 언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4-5절). 하나님은 좌절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속을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전에는 ‘티끌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그의 후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엣 것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절망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다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러러 하늘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 4.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 지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아벨, 에녹,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인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는 상관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의 의’, ‘칭의’, ‘믿음’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던 바울의 이신득의(以信得義,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의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해 주시고 신앙을 부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대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 제 2 차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올린지 477년이 된다. 당시 교회와 종교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상은 필설로 형언키 어려울만큼 비참한 상황이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할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성장과정에서 생긴 수다한 아픔과 비리는 교회를 질식시키거나 교회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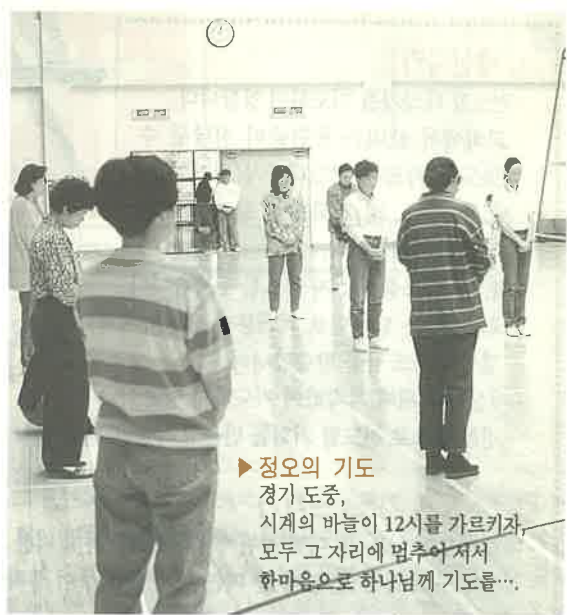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재발견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예언자들과 사도 정신을 재발견하여 뜨거운 회개와 십자가 고난이 강조되는 교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상을 정립하여 화해와 일치 협력의 본을 보이는 새로운 개혁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지난 한 주



▲비전 2000운동 발대식 / 지난 주일 찬양예배시 발대식을 갖고 50일의 행진을 시작한 비전 2000운동. 한주간 동안 새벽전도학교, 오전의 여전도회 연속기도회, 저녁의 남선교회 연속기도회, 그리고 여러가지 모습의 전도활동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오의 기도  
경기도중,  
시계의 바늘이 12시를 가르키자,  
모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들...



◀▶교사체육대회 / (월요일)  
성동구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가진 교사체육대회는 장소의 특성에 맞추어 배구, 탁구, 피구, 농구 등 여러 종류의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자유롭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의 친교와 교회학교 간의 친목이 이루어졌다.

▶새가족헌영회(목요일) / 새가족들은 교회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새가족부 교사들이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한가족됨을 기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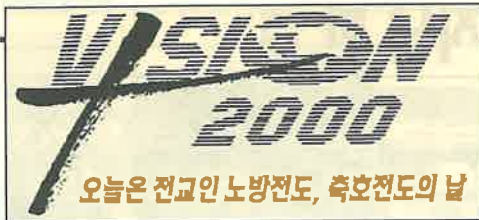
## 한국교계 원로목사 간담회

주최 /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때 / 1994년 10월 7일 (금)    곳 / 서울교회당



▶▶한국교계 원로목사 간담회 (금요일) /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교계의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절실하고도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1층과 4층 예배실에서)





1 태신자카드

- 전도할 대상자를 기도하며 정합니다.
- 교회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카드에 전도대상자(태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작성된 카드를 태신자 카드함에 넣습니다.
- 교회에서는 단계별로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엽서와 카드 등을 발송합니다.
- 태신자를 위해 계속하여 기도하며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전도할 기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2 『정오의 기도』 스티커

- 매일 정오에 어느 곳, 어떤 형편에서라도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오에 주로 있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어 생각날 수 있도록 합니다.
- 매일 정오에는 나라와 교회, 태신자와 개인의 문제, 비전 2000운동의 7개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을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 연속기도회 참석 후 확인 날인을 받습니다.

진도하신 분들께 교회마크 모양의 배지를

- 물고기 형태에 십자가를 넣은 우리 교회마크를 배지로 제작하였습니다.
- 비전 2000 기간 중 한 명 이상 진도하신 분들께 상품으로 드립니다.



달리다곰

나를 찾아주신 예수

김 광 신 (장로, 11교구장)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내 뜻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하나도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부족함이 요구되지 않았습다. 행복한 나날들이었고 기쁨과 환희와 자유함이 나를 감싸주었습니다. 이런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았고 나를 넘어뜨릴 장애물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가정은 검은 구름 한점없고 재산은 쌓을 곳이 없이 많아지기만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저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태풍이 불고 해일이 덮치고 지진이 나고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남이 아닌 바로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나이갈 길이 없어졌고 캄캄한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갑자기 사는 재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과거가 허무하게 느껴졌고 가지고 있는 것, 높은 명예가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연당한 애인같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같이 땅이 꺼지는 기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것들을 더욱 열심히 재연해 보려고 해도 물거품이었고 버려진 존재의식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살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도 희망이 있어야겠다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접촉해야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교회 비전 2000운동을 통해서 예수라는 당신이 절친한 친구의 '새신자카드' 엽서형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던 예수에 대한 생각은 알미운 당신이었습니다. 알미웠다는 것은 가깝고도 먼 느낌, 반가우면서도 미워하고픈 느낌, 애인이면서 타인같은 느낌의 복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밖에 없도록 나를 찾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나에게 알미운 당신으로 가까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시고 타인으로 계시던 당신이 지옥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시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걸음마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두근 두근 하는 순간들인지 당신만은 아실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환희와 평화가 나를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계속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미운 당신이 가까이 하실 당신으로, 나 혼자만 사모할 당신으로, 영원히 섬길 당신으로...

## 서울주간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여 치유받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 태신자를 위하여

#### 비전 2000기도제목

- 복음 전할 기쁨과 사명을 주옵소서.
- 복음전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 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 북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옵소서.
- 한국교회 갱신운동이 복음증거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 비전 2000운동으로 다락방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 목회자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4일(금)에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주관하는 교단 대표자 모임에서 개회 설교를 한다.
  - 한기총의 '정직, 절제, 사랑의 실천운동' 실행위원(이종윤목사, 김명혁 박사, 손봉호 박사)의 첫모임이 13일(목)에 있다.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